



다문화가족 '설 한마당' 광주시 남구는 설을 앞둔 지난 17일 광주향교 충효관에서 다문화가족 가정 100여 명을 초청해 상 차리기, 한복 입기, 세배 하기 등 세시풍속을 체험하는 '설 한마당'을 개최했다. /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 '퀵' 조합원 운송 거부 화물차까지 동참 조짐 여수 물류 차질 확산 우려

여수지역 화물연대 소속 컨테이너 조합원들의 운송 거부가 열흘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화물 조합원들까지 동참할 조짐을 보여 물류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유가하락에 따른 운송비 인하 쪽을 놓고 시작된 화물연대와 운송사 협회와의 갈등이 조합원들의 운송 방해와 이에 대한 운송사들의 단속 요구로 이어지면서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18일 화물연대 전남지부에 따르면 여수에서 광양항으로 수출품을 수송하는 컨테이너 운전자 170여명이 운송사들의 운송비 인하 문제로 지난 9일부터 열흘째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 또 주로 여수에서 서울로 수지제품 등을 운송하는 일반(카고)트럭 운전자 500여명도 운송사협회와 맺은 운

송비 11% 인하안에 대해 최근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거부 동수로 부결을 선언했다. 이들 일반 화물 조합원은 이번 주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운송거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사태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반 화물 조합원들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기존 컨테이너 조합원들의 운송거부와 맞물려 상당한 물류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화물연대는 지난해 6월 합의한 유가연동제의 '기준 유가' 시점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운송비 인하 쪽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운송비 인하 여부를 둘러싼 조합원들과 운송사 간의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일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운전자

들의 운행을 방해하자 운송사들이 경찰의 단속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화물연대 조합원 100여명은 지난 13일부터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출입구 3곳에서 비조합원의 차량 또는 대체운송 수단으로 투입된 외지 차량들에 대해 운송거부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운송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광양항 입구의 도로를 점거하고 운행 차량을 세우며 선진전을 펼치는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광양경찰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의 단속을 촉구한다. 이어 17일에는 광양경찰서를 방문해 항의하기도 했다. /이종형기자 galee@/여수=박영규기자 ykpark@

## 광주 남구 '지식재산도시' 인증

### 특허청, 전국 최초... 주민 발명 지원 사업

광주시 남구가 전국의 자치단체 중 최초로 특허청으로부터 '지식재산도시'로 인증받는다. 남구는 19일 구청에서 고정식 특허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도시 인증 기념식 등을 갖는다. 남구는 지난 2006년 3월 지식재산도시를 선포한 이후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통합조례 제정 ▲한국발

명진흥회, 기술이전센터 등 7개의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주민발명 및 특허등록 지원 등 지식재산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정비와 함께 주민발명 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남구는 지난 3년여 동안 주민 등으로부터 지식재산 아이디어를 926건 접수받아 이중 특허등록 19건, 실용신안 1건, 디자인 1건, 상표 37건

등을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특허 등록된 19건의 지식재산권 중 음악이 흘러나오는 운영음악벤치, 황간보도발광장치 등 3건을 사업화에 성공, 사업체로부터 매달 전체 매출액의 2.5~3%에 달하는 라이선스 이용료를 받고 있다. 한편, 특허청은 지식재산도시로 인증된 남구에 지식재산 시범도시 지정과 함께 특허출원비용의 50% 경감, 주민 교육지원, 지식재산센터 조성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셋! 반달곰이 잠들었어요"

### 지리산서 15마리 동면 등산객 '아~호' 자제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가슴곰 16마리 중 15마리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하얀 겨울잠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한 마리는 움직임이 크게 줄어든 채 가끔 굴을 들락날락하고 있어 곧 완전한 동면을 시작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달곰들의 동면 시기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유난히 늦었던 지난 겨울보다는 보통 정도 빠른 것이다. 2007년 방사한 2년생 어린 곰들은 풀려난 지점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곳에서 잠들었지만 3년생 이상 개체들은 서식지역을 넓혀 지리산 전역을 누비다가 각자 눈에 띄는 굴을 찾아 들어갔다. 지금까지 반달곰들은 기존에

있던 나무굴이나 바위굴에서 동면했으나 4~5년생으로 성체가 돼감에 따라 땅을 직접 파고들어 간 굴도 한 마리 발견했다. 공단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곰이 외부 자극에 놀라 잠에서 깨 활동하면 에너지가 부족해 위험해지기 때문에 탐방객들은 지정된 길만 이용하고 소음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센터 관계자는 "특히 '아~호'는 곰들이 '자자는 곰뿐만 아니라 노루와 고라니에게도 겨울은 4~5월에 태어날 새끼를 뱌 예민한 시기'라고 말했다. 공단은 2004년부터 고아가 된 새끼 반달가슴곰 26마리를 연해 주와 북한에서 들여와 지리산에 방사했으며 이들 가운데 죽고 실종되거나 야생적응에 실패해 돌아온 10마리를 제외한 16마리가 현재 자연상태로 살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9분 해질 17시 47분 달돋이 01시 39분 달질 12시 04분

**햇살로 여는 월요일**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맑겠다.

광주	맑음	0/8℃
목포	맑음	1/7℃
여수	맑음	2/8℃
완도	맑음	1/8℃
구례	맑음	-3/8℃
해남	맑음	-1/9℃
장흥	맑음	-2/9℃
고흥	맑음	-3/9℃
순천	맑음	0/9℃
영광	맑음	-1/7℃
진도	맑음	0/8℃
진주	맑음	0/7℃
남원	맑음	-2/7℃
속산도	맑음	4/6℃

비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면바다	북서~북	1.0~2.0m	목포 08:19	00:48
	북서~북	1.5~2.5m	20:06	13:34
남해 서부 앞바다 면바다	북서~북	0.5~2.0m	여수 03:05	09:03
	북서~북	1.0~2.5m	14:07	21:20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0(화)	21(수)	22(목)	23(금)	24(토)	25(일)
날씨						
최저/최고	-2/10	2/7	2/7	-3/-1	-6/-1	-6/2

## 목포대 등록금 동결

목포대학교가 내년도 등록금 동결 대열에 합류했다. 목포대는 학교 대표와 학부부 대표, 학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9학년도 기성회비 책정위원회를 개최해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 교통 부담차원에서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오염 물질 배출시설 단속 광주시 설날 전후

광주시는 설날을 전후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설연휴 전과 연휴 기간, 연휴 후 등 3단계로 나눠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산업폐수는 감시 자동측정망을 활용해 취약지 수질상태를 24시간 감시하고 무단방류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과 함께 언론에 공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설 연휴에는 시와 각 자치구 등 6곳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산업단지 주변 등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본교보다 학생 많은 분교

광주·전남 일부 농촌지역 학교에서 분교(分校)가 본교(本校)의 학생 수를 추월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수가 되레 늘고 있는 이들 분교들은 맞춤형 교육 정책의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18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해남군 마산초 마산초등학교

떨어지게 됐다. 용전초교는 한반도의 남쪽 끝자락 '땅끝마을'에서 차로 20분밖에 안 걸리는 외딴 곳에 위치해 있지만, 특색있는 교육 방식을 도입해 명문학교로 거듭나고 있다. 용전초교의 가장 큰 지력은 소규모 학교에 적합한 '맞춤형 방과 후 수업'이다. 이 수업에는 에어로빅과 가아

농촌 지역에 위치한 북분교의 현재 학생수는 60명, 6학년 6명이 다음달 초 졸업하지만, 신입생 14명을 새로 받아 전체 학생수는 68명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에 분교인 지산초교는 75명 가운데 16명이 졸업하고 신입생 8명을 받아 67명으로 분교보다 1명이 적다. 시골 분교의 유례없는 변화는 이 학교만이 가진 장점 때문이다. 1935년 문을 연 이 학교는 오랜 역사가 말해주듯 소나무 숲 등 2만여㎡의 친환경적인 공간을 갖고 있다. 학교측은 이 같은 여건을 활용

## 해남 마산초 용정분교·광주 지산초 북분교 영어연극·텃밭조성 등 특색 있는 교육 인기

교 용전분교의 학생 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분교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3년 전교생 수가 4명에 불과해 폐교 위기까지 몰렸던 용전초교는 창조적 학습을 강조하는 대안학교 방식으로 전환한 뒤 학생 수가 56명까지 늘었다. 올해에도 6학년 13명이 졸업하고, 10~15명의 신입생이 입학할 예정이다. 반면 전교생이 42명에 불과한 마산초교는 6학년 13명이 졸업하고, 5~6명 정도가 입학할 예정이어서 학생 수는 30명대로

금, 바이올린, 영어연극, 무용 등 도시 학교에서도 하기 힘든 11개에 이르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또 인근 신기교회의 무료 공부방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도 큰 힘이다. 이처럼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과 후 수업'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광주는 물론 멀리 경기도에서까지 전학 오는 학생이 생겨날 정도다. 광주시 북구 효령동의 지산초등학교 북분교도 올해는 신입생까지 고려하면 분교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영광글비 설날맞이 직송판매**  
고마운분들께 마음을 담아 선물하세요!

**謹賀新年**

전주시민 협회에서는  
지역 행복을 위해서 도와드립니다.  
택배비 무료

문의: 061-351-0094

팩스: 061-351-0092

주소: 전주시 덕진구 서문동 1-1

충성수신

061-351-0094